

2026.03.19. 10:09

또 목요일 외래입니다. 요즘 잠이 조금 늘어서 자꾸 잠들다보니 일기를 쓸 시간이 없네요. 거기다 딸아이에게 편지도 쓰니 생각보다 바쁩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엉망입니다. 트럼프 때문에 유가가 폭등한 이후로 주식시장이 휘청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 기사로 살펴보면 리스크는 지금까지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 코로나 시기 초저금리 대출과 채권 만기가 몰려.
- 이란 침공으로 유가 LNG 가격 상승.
- 관세, 전쟁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기준금리 고금리 상태
- AI로 인한 실업률 증가.
- 사모 펀드 시장의 위험도 증가

적어놓고 보니 리스크가 너무 많네요. 실제로 이 리스크들만 본다면 IT 기업투자는 손을 빼는 것이 맞아보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국 정부와 금융권의 똑똑한 분들이 다음 정책을 하지 않을까요?

- 기준금리의 빠른 인하
- 관세 정책의 빠른 마무리
- 이란 침공문제의 조속한 해결

사모펀드 문제, 대출 및 채권 만기 문제는 기준금리의 공격적 인하로 어느정도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실업률의 증가 역시 FOMC의 두가지 목표인 물가 안정과 실업률 감소에 부합하고, 이 두가지 문제 중에 실업률이 더 중요하다고 FOMC도 이야기하고 있으니깐요. 관세정책 역시 어느정도 끝이 났다고 보면 남은 것은 이란 침공입니다. 이것 최대한 빨리 해결하는 것이 미국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하나남은 문제가 전쟁이라는 점입니다. 전쟁은 언제나 예측불허하기에 전쟁의 전황을 기준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 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현재 이 유가 문제는 6개월 이상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정도 공급망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면 산유국들은 우회 수송수단을 확립하거나 아니면 이란과 전면전을 할 것이니까요. 결국 제 생각으로는 공급망 문제는 4월 둘째주 안에 정리가 되고 이후 유가 자체는 3개월 내에 안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6~7월이 되겠군요.

그리고 보니 6월이 되면 FOMC 의장이 달라지죠. 트럼프 생각해서 금리인하를 두번 하고 싶겠지만 아마 한 번은 하겠네요.

음... 상황을 적어보니 조금 불안감이 줄었습니다. 물론 저는 틀릴 수 있지만 언제나 공포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은 정부나 기관이, 그리고 기업이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알고 있지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정부나 기관, 기업도 알고 있는 것이고, 그들 역시 우리들처럼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냥 계획대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미친 듯이 오르고 있는 셰니어 에너지 주식을 정리하고 이후 FOMC 의장이 교체되며 금값이 상승하면 그걸 정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금으로 IT 회사 중에 가장 전망이 나아보이는 회사에 집중 투자를 한 후 연말 LNG 재매수를 준비하려 합니다. 살 것이 많네요. 하반기에 IT 회사 주식을 산 후 LNG, FSLR, BE, PLUG를 매수해야 하니까요. 투자도 바쁩니다.

음... 점심시간동안 쉬면서 생각해봤는데 제가 너무 밝은 전망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이게 맞을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해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만약 전쟁이:

4월 중순 전에 끝나면 7월 정도까지 유가가 치솟아리며 인플레이션
상방압력이 커지고 금리인하가 진행될지도. 그러면 금리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이나 가계부담이 반 년에 걸쳐 분산되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문제가 될 실업률 증가의 충격이 분산될 것입니다.
6월 즈음 끝나면 상황은 매우 안 좋습니다. 현재 전황을 보면 이
정도 기간동안 전쟁을 하면 이란 뿐만 아니라 전쟁에 말려든
모든 나라의 인프라가 망가질 것입니다. 그러면 복구에 1년 이상이
걸려 올해 내내 국제유가는 높은 상태를 유지할 것이고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FOMC의 금리인하를 방해할지도. 그리고 높은
금리로 인해 가계부담과 회사들의 해고가 증가하다 AI로 시작된
실업률 증가와 겹치며 강한 경기침체를 경험하게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리스크를 1년에 걸쳐 분산시키느냐 아니면 짧은 시간동안
다중 콤보 공격을 맞느냐의 문제일 듯 합니다.

x 결국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4월달까지 전쟁이 끝나면
현재 계획대로 LNG 등을 팔아 IT 주식을 사면 되지만 5월을 넘어
가면 최대한 많은 주식을 매도한 후 뒷날을 기약하자. 못 버는 것이
잃는 것보다 낫

